

동서양의 시와 소설에 재현된 삶과 죽음, 사랑과 용서:

루이스 글뤽, 에밀리 디킨슨, 이반 볼랜드, 조안 디디언, 이창래, 그리고 우리 시대 한국 시인들

2021년 10월 27일

발표자: 박진임(평택대학교수, 문학평론가)

Copyright

Copyright ©2021 by Jinim Park. All rights reserved.

이 발표문의 저작권은 박진임에게 있습니다.

저자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인간의 실존과 고독

There's a certain Slant of light, (320)

by Emily Dickinson

There's a certain Slant of light,

Winter Afternoons –

That oppresses, like the Heft

Of Cathedral Tunes –

Heavenly Hurt, it gives us –

We can find no scar,

But internal difference –

Where the Meanings, are –

None may teach it – Any –

'Tis the seal Despair –

An imperial affliction

Sent us of the Air –

When it comes, the Landscape listens –

Shadows – hold their breath –

When it goes, 'tis like the Distance

On the look of Death –

*Source: The Poems of Emily Dickinson Edited by R. W. Frankli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한 줄기 비스듬한 빛을 본다
겨울날의 오후엔.
그 빛은 종압적이다.
마치도 성당의 음악소리처럼 둔중하여.

천상의 상처를, 그 빛은 우리에게 준다.
상처의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내면의 차이, 의미가 존재하는 곳에 차이가 생긴다.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으리라, 아무도.
봉인된 절망...
위력적인 고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로 온.



Emily Dickinson
(1830~1886)

내려올 때에는 풍경이 귀기울여 듣는다.

그림자들은 숨을 멈춘다.

떠나갈 때에는,

죽음까지의

먼 거리 같다

(박진임 역)

The Waste Land

BY T. S. ELIOT

FOR EZRA POUND

IL MIGLIOR FABBRO

April is the cruellest month,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Memory and desire, stirring

Dull roots with spring rain.

Winter kept us warm, covering

Earth in forgetful snow, feeding

A little life with dried tubers.

A little life with dried tubers.

Summer surprised us, coming over the Starnbergersee

With a shower of rain; we stopped in the colonnade,

And went on in sunlight, into the Hofgarten,

And drank coffee, and talked for an hour.

황무지, 에즈라 파운드에게.

I. 망자의 매장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싹 트게 하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무디어진 뿌리를 봄비로 휘젓는 달.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 주었다.
대지는 망각의 눈으로 덮어버린 채
말라버린 구근에는 생명을 조금씩만 떠 넣어주면서.
여름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Thomas Stearns Eliot
(1888~1965)

스탄베르게시에 소나기를 거느리고 찾아와서.
우리는 콜로네이드에 멈추어섰다가
해가 나면 호프가르텐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한 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콜로네이드: 지붕을 떠받치도록 일렬로 세운 돌기둥

(박진임 역)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

헉헉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개가 울고 종이 울리고 달이 떠도

너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여

오오 봄이여

한없이 풀어지는 피곤한 마음에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너의 꿈이 달의 행로와 비슷한 회전을 하더라도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기적소리가 과연 슬프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서둘지 말라 나의 빛이여

오오 인생이여

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과

그러한 모든 것이 보이는 밤

눈을 뜨지 않은 땅속의 벌레같이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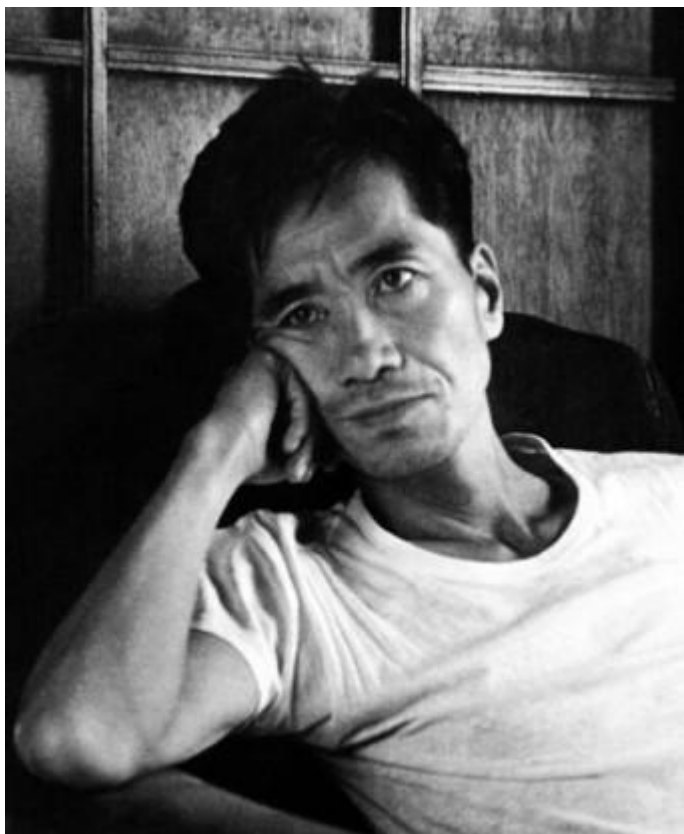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오 나의 영감(靈感)이여

-- 김수영 「봄밤」



김수영
(1921~1968)

영경은 컵라면과 주 한 병을 샀다. 컵라면에 물을 부으며 그녀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서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영경은 작게 읊조렸다.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 헉헉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달이 떠도 너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영경은 자신의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지 못했다.....영경은 컵라면과 소주 한 병을 비우고 과자 한 봉지와 페트 소주와 생수를 사 가지고 편의점을 나왔다. 눈을 뜨지 않은 땅속의 벌레같이!영경은 큰 소리로 외치며 걸었다.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영경은 작은 모텔 앞에 멈춰 섰다.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오 나의 영감(靈感)이여! 갑자기 수환이 보고 싶었다.

--권여선, 「봄밤」『2014년 올해의 문제소설』 34면,

새벽에 홀로 깨어 있으면

노트르담의 성당 종탑에 새겨진 '운명' 이라는 희랍어를 보고

『노트르담의 꼽추』를 썼다는 빅토르 위고가 생각나고

연인에게 달려가며 빨리 가고 싶어 30분마다

마부에게 팁을 주었다는 발자크도 생각난다

새벽에 홀로 깨어 있으면

인간의 소리를 가장 닮았다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가 생각나고

너무 외로워서 자신의 얼굴 그리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다는

고흐의 자화상이 생각난다

새벽에 홀로 깨어 있으면

어둠을 말하는 자만이 진실을 말한다던 파울 첼란이 생각나고
좌우명이 진리는 구체적이라던 브레히트도 생각난다

새벽에 홀로 깨어 있으면

소리 한 점 없는 침묵도 잡다한 소음도

훌륭한 음악이라고 한 존 케이지가 생각나고

소유를 자유로 바꾼 디오 게네스도 생각난다.



천양희
(1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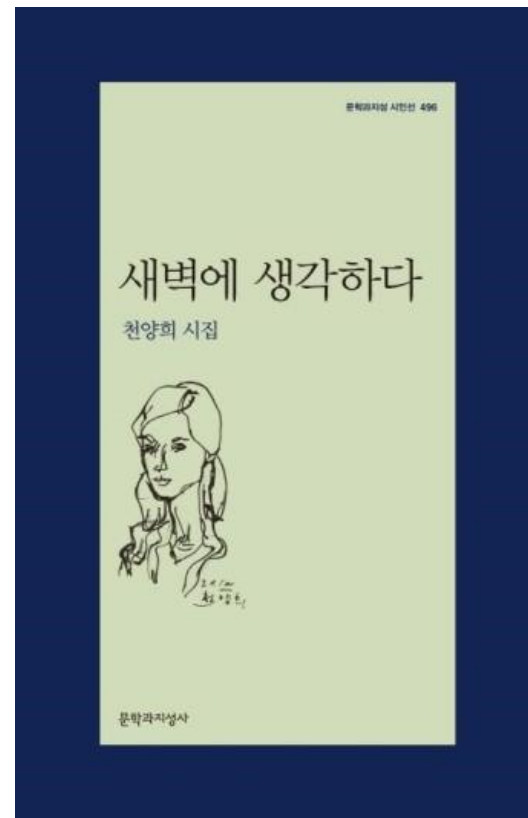
새벽에 홀로 깨어 있으면
괴테의 시에 슈베르트가 작곡한 ‘마왕’이 생각나고

실러의 시에 베토벤이 작곡한 ‘환희의 송가’도 생각난다

새벽에 홀로 깨어 있으면
마지막으로 미셸 투르니에의 묘비명이 생각난다
"내 그대를 찬양했더니 그대는 그보다 백배나 많은 것을

내게 갚아 주었도다 고맙다 나의 인생이여“

--천양희, 「새벽에 생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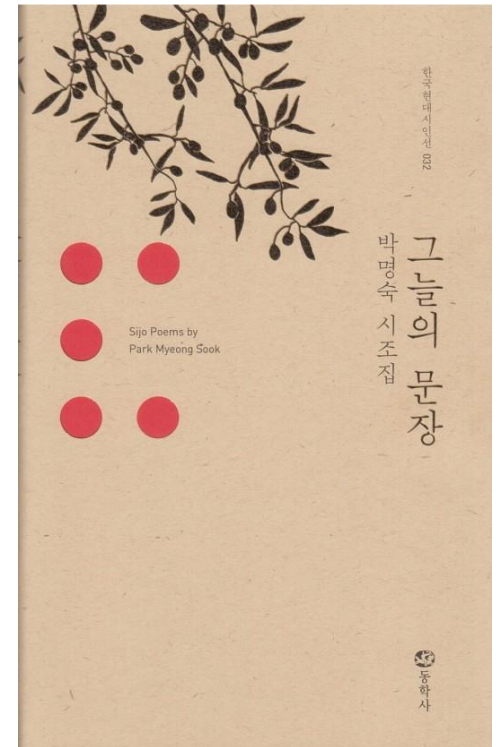
저것은 구름이라, 한 켄레 먹구름이라
허둥지둥 달아나다 벗겨진 시간이라
흐르는 만경창파에 사로잡힌 나막신이라

훈비백산 내던져진, 다시는 신지 못할
문수도 찢 수 없는 헌신짝 같은 섬이라
누구도 달을 수 없는 한 켄레 먹구름이라

-- 박명숙, 『신발이거나 아니거나』



박명숙
(1956~)



한강을 앞에 두면
한강의 기억이

둘이 바라보다
혼자 서 있기도

한강이 드러눕는다
오늘은 비가 내린다

너는 뒤돌아본다
그만 실족할까요?

몸이 기우는 동안
빗소리가 넘친다

회전이 아름다워진다
투명으로 가득 찼다

애인이 지나가고
엄마가 지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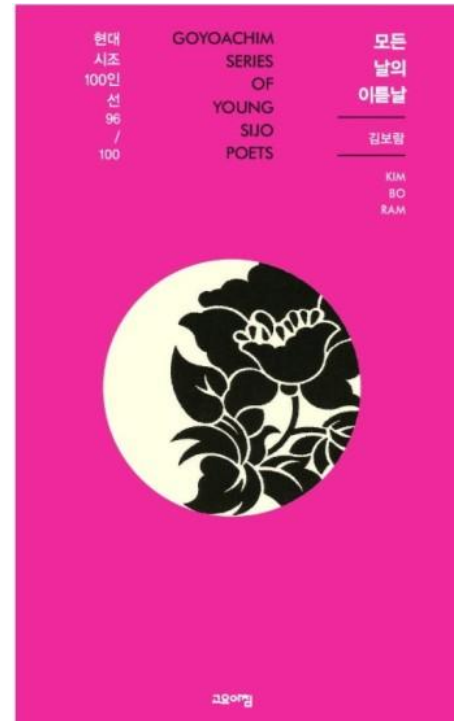
밤과 안개가
불빛으로 흘러간다

눈앞엔 강하나 비었다
바라보며 울었다

-- 김보람 「한강이라는 밤」



김보람
(1988~)



우리는 물류 창고에서 만났지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차려 입고

느리고 섞이지 않는 말들을 하느라

호흡을 다 써 버렸지

물건들은 널리 알려졌지

판매는 끊임없이 증가했지

창고 안에서 우리들은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돌아오곤 했지 갔던 곳을

또 가기도 했어

무얼 끌어내리려는 건 아니었어

그냥 담당자처럼 걸어 다녔지

바지 주머니엔 볼펜과 폰이 꽂혀 있었고

전화를 받느라 구석에 서 있곤 했는데

그런 땐 꼼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

물건의 전개는 여러모로 훌륭했는데

물건은 많은 종류가 있고 집합되어 있고

물건 찾는 방법을 몰라

닥치는 대로 물건에 손대는 우리의 전진도 훌륭하고

물류 창고에서는 누구나 훌륭해 보였는데

창고를 빠져나가기 전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누군가 울기 시작한다.

누군가 토하기 시작한다.

누군가 서서

등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누군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몇몇은 그러한 누군가들을 따라 하기 시작한다.

대화는 건물 밖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이라 쓰여 있었고

그래도 한동안 우리는 웅성거렸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소란하기만 했는데

창고를 빠져나가기 전에 정숙을 떠올리고

누군가 입을 다물기 시작한다.

누군가 그것을 따라 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조금씩 잠잠해지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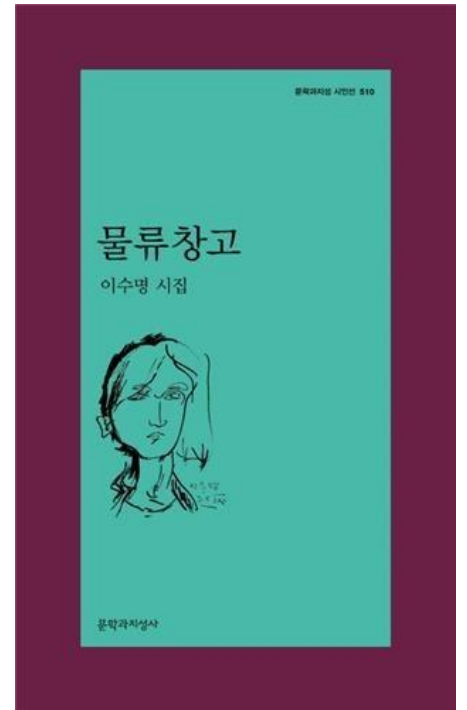
더 계속 계속 잠잠해지다가

이윽고 우리는 어느 순간 완전히 잠잠해질 수 있었다.

-- 이수명, 「물류창고」



이수명
(1965~)



2. 삶과 죽음

My body, now that we will not be traveling together much longer

I begin to feel a new tenderness toward you,

very raw and unfamiliar,

like what I remember love when I was young

...

My soul has been so fearful, so violent;

forgive its brutality

As though it were that soul, my hand moves

over you cautiously,

not wishing to give offense

but eager, finally, to achieve expression as substance:

it is not the earth I will miss,

it is you I will miss.

「갈림길 (Crossroads)」, 『마을의 삶 (A Village Life)』수록. 줄역.

내 몸이여, 이제 우리가 함께 여행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대를 향해 전에 없이 부드러운 마음이 드는구려.
다듬어지지 않고, 낯설기만 한.
마치도 어린 시절의 사랑의 기억처럼.

(중략)

내 영혼은 거칠고 험했었네.
그 광포함을 용서해주게.
내 손은 마치도 그렇게 말하는 영혼처럼 그대 위에 조심스레 움직이네.

그대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마침내 분명하게 표현해내려고 애를 쓰면서...

내가 그리워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네
내가 그리워할 것은 바로 그대일세.



루이스 글릭
(1943~)

계절이 바뀔 때 산에서는 새들의 냄새가 짙어진다.

어려선 늘 궁금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의 마지막 모습이.

새들의 장례를 그려보며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거꾸로 흐르는 유성처럼 지구 대기 바깥으로 활공하는 새,
눈에 보이는 하늘보다 더 먼 하늘로 날아가는 새들을 상상했다.

우주로부터 와 지구에서 잠시 살다가

다시 우주로 가는 생명체들.

겨울에서 봄

봄에서 여름

가을에서 겨울

바람과 기온과 물의 성질이 바뀌는 때가 오면
아프거나 늙은 새들이 종얼거리는 소리 들려온다.

산속골짜기마다 새들의 냄새 짙어진다.

환절기의 냄새를 맡게 되면서 알게 됐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결국 땅에서 죽는다는 것.

지구라는 우주의 품에서 마지막을 맞는다는 것.

지구밖으로 날아가던 어린 날의 우주와
지구 안쪽으로 넓어지는 어리지 않은 날의 우주,

이 모든 우주가 다 좋은
환절기에 이르렀다.

-- 김선우 「환절기」



김선우
(1970~)

미국 소설가 조안 디디언 (Joan Didion) 또한 남편과 딸이 나란히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이가 느낀 비통함을 소설로 썼다.

The Year of Magical Thinking.

“나는 전설 속의 강들을 건너간 것 같았다.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르느 강...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 본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어떤 장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장소에 들어간 것 같았다. 난생 처음으로 그 강들이 지니는 시각적 힘을 깨닫게 되었다.

스틱스(Styx), 레테(Letthe), 작대기를 쥔 채 망토를 등에 걸친 뱃사공...

난생 처음으로 순장(suttee)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중략)

나는 하룻밤을 훨씬 넘는 기억과 한숨의 밤을 원했다.

나는 악을 쓰며 소리 지르고 싶었다. 남편을 되찾고 싶었다.”



Joan Didion
(1934~)



이달균
(1957~)

죽음 곁에 몸을 누이고 주위를 돌아본다
평원은 한 마리 야수를 키웠지만
먼 하늘 마른번개처럼 눈빛은 덧없다
어깨를 짓누르던 제왕을 버리고 나니
노여운 생애가 한낮의 꿈만 같다
갈기에 나비가 노는 이 평화의 낮설음
태양의 주위를 도는 독수리 한 마리
이제 나를 드릴 고귀한 시간이 왔다
짓무른 발톱사이로 벌써 개미가 찾아왔다

-- 이달균, 「늙은 사자」 전문

다소곳 함께하다 무를 떠난 우는
다른 무 앞에 서서 찬 하늘로 굳어가고
옆구리 허전한 무는 오늘도
맵싸한 향길 품는다

자존심 강한 우는 무 뒤에 서기 싫어
맵싸한 향기 두고 미련없이 떠났다
이제는 다른 무 앞에 서
울지 않는 하늘이다.

*한천(寒天)에서 한(寒)은 울지 않다의 훈(訓)도 갖는다.

--정병기, 「무우 무」

천 년

다시 천 년

살도 뼈도 삭았으리

그날

하얀 무지개

믿음의 서릿발은

때 아닌

구름을 몰아

안마당에 부린다.

언제던가
살갓 밑에
굳어 앉은 날개

새로 돋으려나
가려운 겨드랑이

떨그럭
끊어진 하늘
징검다리 놓는 구름

-- 박재두, 「때 아닌 구름: 이차돈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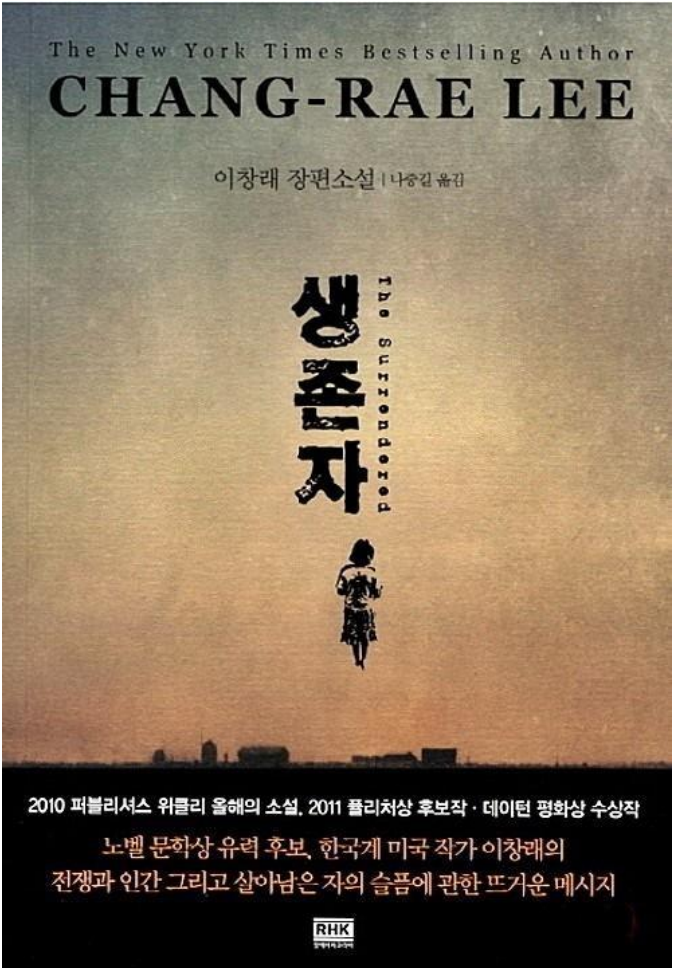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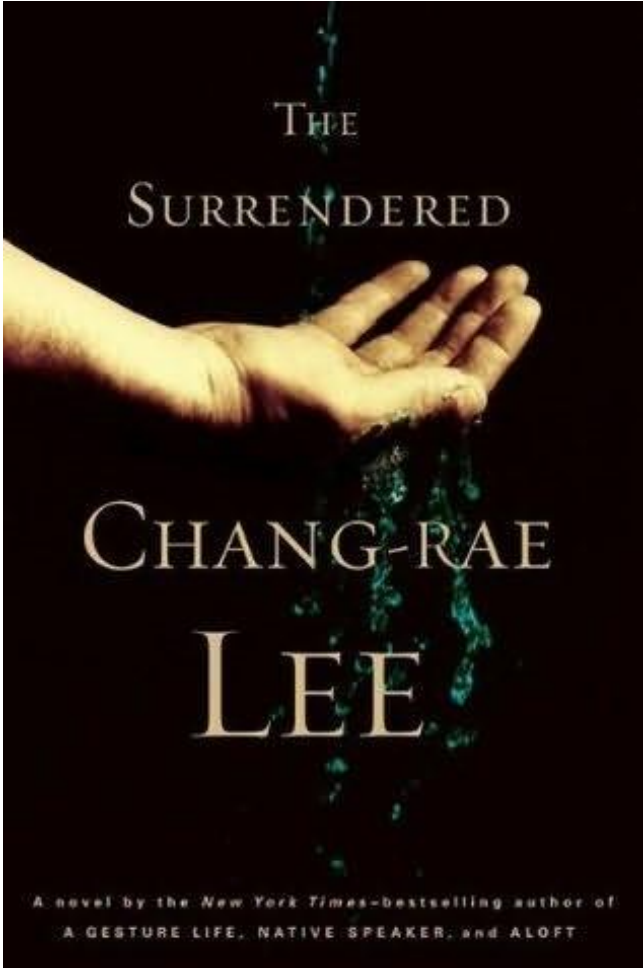


박재두
(1936~2004)

3. 이창래 소설 『투항자들』: 고통과 시, 그리고 시적 종결 (박진임, 『문학수첩』 2021 하반기호 게재)



이창래
(1965~)



솔페리노 전투, 제2차 대전 중의 일본의 만주 전쟁, 그리고 한국 전쟁. 이창래는 이처럼 인류 현대사에 만연해있는 전쟁들을 배경으로 삼아 그 전쟁을 통과해나가는 인간들의 삶을 그리지만 그가 재현하는 인류의 고통은 당연히 전쟁에만 그 원인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인류의 비참은 곳곳에 널려있다. 아일랜드 대기근이 야기한 아사, 범죄, 실항의 고통도 그 중의 하나이다. 어쩌면 인류가 경험하는 고통은 형태와 지역을 바꾸어가며 계속 등장하지만 그 고통의 뿌리는 동일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통의 구조가 동일하므로 위로의 방식들도 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통과 위로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큰 의미를 지니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창래는 시인의 감수성으로 고통과 위안 사이를 연결하는 거미줄같이 미세한 슬픔의 언어들을 탐색한다. 그리고 발견한 것을 텍스트에 부린다. 대기근 시절의 아일랜드를 소재로 삼은 노래가 한국 전쟁으로 초토화된 반도에서 다시 울려 나오게 한다. 도끼에 발가락을 잘리고 피를 흘리는 아이를 들쳐 업고 달려가는 헥터가 민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를 달래느라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자. “그가 어릴 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그의 어머니는 아일랜드 대기근 시대의 노래인 아텐라이 들판을 자주 불러주었다” “그는 민에게 자기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도록 했다.”(163면).

Low lie the fields of Athenry,
Where once we watched the small free birds fly.
Our love was on the wing.
We had dreams and songs to sing.
It's so lonely round the fields of Athenry. (Lee, 114면)

저 아래 아쓰리 들판이 있네.
자유로운 작은 새가 날아가는 것을 우리 함께 보았지.
우리 사랑도 그 날개에 있었지.
그 때 우린 꿈이 있었고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지.
지금 아쓰리 들판 주변은 너무도 쓸쓸하네. (졸역)

아일랜드 민요의 일부를 헥터는 아이에게 불러주는데 그 노래는 아일랜드 대기근의 한을 품은 채 대서양 바다를 건너 미국 뉴저지의 어린 헥터에게 전수되었던 노래이다. 그 노래가 다시 태평양을 건너 한국의 민에게 전달되면서 노래는 세계를 한 바퀴 돌게 된다. 실비가 솔페리노를 거쳐 중국의 창충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 시애틀로 돌아간 뒤 한국 전쟁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인류의 비참과 고통이 지구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전개되는 동안 슬픔 속에 태어나는 위로의 노래도 지구를 함께 여행하는 것이다.

노래 가사의 기본 정조는 쓸쓸함이라 할 수 있다. 발아래 펼쳐지는 들판을 보면서 시적 화자가 느끼게 된 외로움이 인용된 가사의 첫 행과 마지막 행에서 펼쳐진다. [한국어판 번역자는그 첫 행을 건너 뛰면서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했다. 그 점에 유의하지 않았기에 필자가 다시 번역해본 것이다. 첫 행에서 “저 아래 아쓰리 들판이 있네”를 행 바꾸기 하여 뒤로 보내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 행을 굳이 먼저 번역해야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들판이 시 전체의 배경이 되어줄 때에만 시적 화자의 과거와 현재가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랑과 꿈, 그리고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고 작은 새가 자유를 누리며 하늘을 날아다니던 과거의 시간대가 그 들판에서 전개된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적 화자가 홀로 쓸쓸히 발아래 들판을 내려다 보고 있는 정경이 본격적인 의미를 드러내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헥터는 부상 당한 민을 업고 산을 넘어가면서 아이를 달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어린 시절 자신을 달콤한 잠으로 이끌던 어머니의 노래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전쟁, 기아, 폭력, 강간등의 형태로 인간에게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노래를 짓고 부르고 전수하면서 자신의 삶을 감당해온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눈물과 위로를 주었던 노래는 그 사람이 사라진 다음에도 살아 남아 시간과 공간 속을 여행하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 다시금 그로 하여금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위로를 제공하면서...

이창래는 삶의 아이러니도 노래나 시를 통해 극대화하고 있다. 헥터는 오랜 고통과 비극적인 삶의 끝부분에서 도라(Dora)의 사랑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그 기대는 역설적이게도 실현되려는 바로 그 순간, 예기치 않은 사고로 허물어지게 된다. 준이 헥터를 다시 찾게 되면서 도라가 우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도라와 헥터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려는 장면에서 도라가 부르는 노래가 있다. “이렇게 행복한 날, 이제는 더 이상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으리”(357면). 더 이상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으리라는 노래를 부른 그 날, 도라는 그 행복에 종말을 고하고 헥터를 다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소설 전편에 적절히 삽입된 한 두 줄의 시들은 소설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이창래의 소설 그 자체를 한 편의 시로 승화시킨다. 이창래는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종결(poetic closure)의 함의를 선형적으로 감지하고 체득한 듯하다. 텍스트를 마감 처리하는 방식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수미쌍괄의 방식으로 소설적 모티프를 배치함으로써 텍스트 전체가 한 편의 완결된 형식을 지니게 만든다. 그러나 그러한 소설의 끝마무리는 구조적 완결성 이상의 복합적인 의미를 또한 내포한다. 어쩌면 소설의 주제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그 구조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솔페리노에서 준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준의 죽음을 그려내기 위해서 작가 이창래는 함축성과 상징성이 강한 장면을 연출한다. 그래서 시적인 결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의 종결은 두 차례 이루어진다. 먼저 헥터와 준이 마침내 솔페리노 교회에 도달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소설은 한 차례 끝난다. 준은 이미 생명을 잃어 가고 있는 상태이므로 주변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솔페리노는 준과 헥터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실비의 존재를 상징하는 장소이므로 그들은 필사적으로 거기에 도달해야 한다. 실비와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솔페리노는 단연코 아름다워야 한다. 헥터와 준, 그들의 소중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였다는 것, 그것은 결국 헥터와 준의 삶도 마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장면을 보자.

“교회 안으로 들어왔나요?” 준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은 반짝이는 석탄 덩어리 같았다. “여기가 거기인가요?” 헥터는 그렇다고 답했다. “아름다운 장소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와,” 헥터는 속삭였다.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는 않으면서 속삭였다. “여기가 우리의 자리야.”(Lee, 469면).

그렇게 소설은 끝나는 듯하다. 그러나 작가는 문득 돌아서면서 아직 끝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잠깐만, 아직 아니야 **Not Yet.**”(Lee, 469면). 그리고 작가는 이미 아무 것도 볼 수 없게 된 준의 내면으로 다시 한 번 독자를 데려간다.

준으로 하여금 떠나려는 기차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게 하면서 결국 가까스로 그 기차에 올라타는 데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소설의 도입에서 준이 한국 전쟁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가 부모와 동생들을 차례차례 잃게 되면서 그의 비극적 삶이 시작되었던 것을 상기해볼 수 있다. 특히 부모를 여읜 뒤 준이 동생들과 함께 기차 지붕에 올라타고 피난을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차가 급정거하면서 동생들이 추락하게 된 장면을 기억할 수 있다. 준은 다리가 잘린 동생을 돌보지 못한 채 자신의 생존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차를 향해 달려가고 만다. 그리고 결국 그 기차에 올라타게 된다. 자신만 살아남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설의 결말은 시작과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기차는 두 번 등장한다. 그 기차를 향해 준은 두 번 다 맹렬히 달려 간다. **1950**년 한국, 살아남기 위해서 떠나는 기차를 향해 달렸던 준이 이제는 이탈리아의 솔페리노에서 다시 한번 환각 속의 기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 기차는 준을 저 세상으로 데려갈 기차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준은 기차에 올라타는 데 성공한다. 어렸을 때 전쟁 중에 그러했던 것처럼. 작가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쓴다. “그녀는 지면에서 발을 뗐다. 살아남은 것이다”(661면).

지면에서 발을 떼고 기차에 올라타는 준의 모습은 그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성공적인 선택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처음의 선택은 삶의 기차에 올라타기였고 마지막의 선택은 죽음의 기차에 올라타는 것이다. 서사가 종결에 이른 다음 그동안의 서사를 뒤집는 듯한 이러한 기법은 더 발전한다면 브레히트(Brecht)의 소격효과(alienation effect)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얀 마텔(Yann Martel)의 『파이 이야기 Life of Pi』에서 그 기법은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소설의 격을 드높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창래가 보여주는 것은 프랑스 영화에서 자주 접하는 영화 종결 방식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결 이후에 또 하나의 종결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러하다. 현실 속에서 이르고자 했던 곳에 마침내 도달함으로써 준과 헥터의 삶은 마무리되어도 좋은 순간에 이른다. 그러나 준의 원초적 트라우마, 부상 당한 동생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 기차를 향해 달려간 기억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준을 풀어주지 않는다.

텍스트로 하여금 주제를 스스로 웅변하게 만들 때 소설가는 훌륭한 시인이 그러하듯 “사상을 장미의 향기와 같이 느끼게” 만드는 데 성공한다. 『투항자들』의 결말에서는 확연히 장미의 향기를 느끼게 된다. 장미의 향기 속에서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 현실과 환각 사이의 경계를 지워버렸을 때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곧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된다.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 있다는 것이 곧 가장 값진 삶인 까닭에 우리는 모두 질주한다. 삶을 위한 그 질주가 결국에는 죽음을 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달린다. 마침내 지면에서 준은 발을 뗐고 그래서 준은 살아남았다고 작가는 썼다. 독자는 “살아남은 것이다”를 “숨을 거둔 것이다”로 읽는다. ‘언급된 것(the said)’과 ‘언급되지 않은 것 (the unsaid)’사이의 긴장이 팽팽하다. 그런 문장을 시적인 문장이라고밖에 달리 무어라 이르겠는가? 더구나 그 마지막 장면을 시작하기 위해 작가가 삽입한 한 줄, “잠깐만, 아직 아니야 **Not Yet**”은 더욱 주목해 보아야 한다. 소설의 맨 첫줄과 함께 다시 읽어야 한다. 첫줄은 “여행은 거의 끝났다 **The Journey was nearly over**”라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준의 피난길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이야기는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 여행이 끝난 것처럼 보인 뒤에도 “아직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다시 한 번 시작하고 마침내 끝난다. “거의 끝났다”와 “아직 아니야”라는 두 문장 사이에 『투항자들』의 모든 서사가 놓여있다. 마지막 장면을 보자.

준은 기차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마지막 객차가 그녀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기차는 그녀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달리고 있는 듯 보였다... 마지막 객차의 바퀴가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내면서 섬광을 번쩍였다. 그것은 속도를 내며 멀어지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소리를 질렀다. 다음 순간 그녀는 숨을 멈춘 채 문의 시커먼 모서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뒤쪽으로 세상이 빠른 속도로 멀어졌다. 누군가가 그녀를 끌어올려 품어주었다. 그녀는 지면에서 발을 뗐다. 살아 남은 것이다 (660~1면).

4. 사랑과 그리움

The Lost Land

By Eavan Boland

I have two daughters.
They are all I ever wanted from the earth.
Or almost all.
I also wanted one piece of ground:
One city trapped by hills. One urban river.
An island in its element.

So I could say mine. My own.
And mean it.

Now they are grown up and far away

and memory itself
has become an emigrant,
wandering in a place
where love disassembles itself as landscape:

Where the hills
are the colours of a child's eyes,
where my children are distances, horizons:

At night,
on the edge of sleep,

I can see the shore of Dublin Bay.
Its rocky sweep and its granite pier.

Is this, I say
how they must have seen it,
backing out on the mailboat at twilight,

shadows falling
on everything they had to leave?

And would love forever?

And then

I imagine myself
at the landward rail of that boat
searching for the last sight of a hand.

I see myself
on the underworld side of that water,
the darkness coming in fast, saying
all the names I know for a lost land:

Ireland. Absence. Daughter.

“The Lost Land” from THE LOST LAND by Eavan Boland. Copyright ©1998 by Eavan Boland. Used by permission of W.W. Norton & Company, Inc.

Source: The Lost Land (W. W. Norton and Company Inc., 1998)

내겐 딸이 둘 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딸 뿐이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땅 한 조각도 갖고 싶긴 했다.
언덕에 둘러 싸인 도시, 그 도시의 강 한 줄기.
이를테면 섬 하나를.
그래서 “내거야, 내 것이라고”하고 말할 수 있게.
진정으로.

딸들은 이제 자라서 멀리 가버렸다.
내 기억은 이민자가 되어
헤매어 다닌다.
사랑이 흩어져 풍경이 되는 곳을.

내 아이들의 눈빛, 그 빛을 지닌 언덕과
아이들이 원경이 되고 지평선이 되어 있는 곳을.

밤이면,
잠의 언저리에서
더블린 만의 해안을 본다.
깎아지른 바위들과 화강암의 항구를.

나는 묻는다.
“이게 그들이 보았던 것인가요?
해질 무렵 뒤로 물러나는 우편선에 올라서?”

“버리고 가야 하는 모든 것 위에
저녁 어둠이 드리울 때,
영원히 그리워할 그 모든 것 위에?”

그리곤

누군가의 마지막 손짓을 찾아 헤매는
나를 그려본다.
육지 쪽 배 난간에 서서...

나는 바다의 지하세계에 있다.
어둠은 급속히 몰려드는데...
내가 아는,
잃어버린 땅의
모든 이름을 부르며...

“아일랜드, 부재, 딸”

-- 이반 볼랜드, 『잃어버린 땅』 (박진임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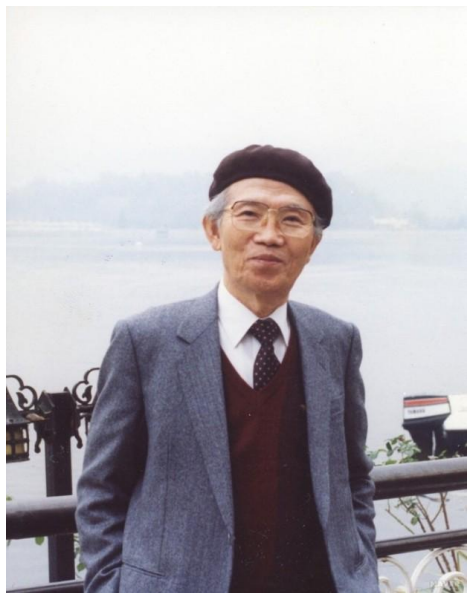


Eavan Boland (1944~2020)

십년이면 강산 둘레 풀빛도 변한다는데
그 십년, 감절도 넘겨 지고 온 애졌던 짐을
그토록 애졌던 짐을, 부리고 돌아서는 허전함이어.

빛지지 못해보고 어이해 그 빛을 갇는다느냐
보아라, 저기 수양산 그늘은 강동 팔십리
내 도로 너희들 그늘에 묻혀 홀이나 불러주마.

-- 김상옥, 「딸에게 주는 홀기」 『삼행시: 김상옥 시집』 (서울: 아자방, 1975년)



김상옥 (1920~2004)

빼꾸기 봄 한철을 갈아낸 그 먹물을 내가 받네 내가 받아 한 장 편지를 쓰네 어디라
머리칼 한 올 잡아볼 길 없는 네게

너 있는 그곳에도 봄 오면 봄이 오고 봄 오면 멍든 봄이 멍이 들고 그런가 몰라
서럽고 막 그런가 몰라 꽃 피고 또 꽃 진 날에

너 나랑 눈 맞춰 둔 그 하루 그 허기진 날 말로는 다 못하고 끝내는 못다 하고 꽃이면
꽃이랄 것이 꼭 꽃만도 아닌 것이

너 다녀간 꿈길 끝에 찬비만 오락가락 오락가락 찬비 속에 목이 젖은 먼 빼꾸기
젖은 목 말리지 못한 채 먹점 찍는 먼 빼꾸기

— 박기섭, 「빼꾸기가 쓰는 편지: 먼저 간 아우를 어느 봄 꿈에 보고」

나는 영락(零落)한 고독의 가마귀

창랑히 설한(雪寒)의 거리를 가도

심사(心思)는 머언 고향의

푸른 하늘 새빨간 동백에 지치었어라

고향 사람들 나의 꿈을 비웃고

내 그를 증오하여 폐리같이 버리었나니

어찌 내 마음 독사 같지 못하여

그 불신(不信)한 미소와 인사를

꽃같이 그리는고

오오 나의 고향은 머언 남쪽 바닷가

반짝이는 물결 아득히 수평(水平)에 조을고

창파(滄波)에 씻긴 조약돌 같은 색시의 마음은

갈매기 울음에 수심져 있나니

희망은 떨어진 포켓트로 흘러가고

내 흑노(黑奴)같이 병들어

이향(異鄉)의 치운 가로수 밑에 죽지 않으려나니

오오 저녁 산새처럼 찾아갈 고향길은 어디메뇨

--유치환, 「향수 鄉愁」



유치환 (1908~1967)